

한센인마을 첫 살인사건 ‘충격의 소록도’

60대 한센인, 주민 2명 살해 후 자해 시도 중태

1000명 거주 불구 상주 경찰관 없어 치안 공백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센인 남녀 2명이 숨졌고, 용의자는 자해해 중태에 빠졌다.

한센인마을이 조성된 지 100년만의 사건으로, 마을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질병과 사회적 편견 탓에 한센인들은 소록도로 내몰렸고, 이 곳에서 자치회와 규율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가 의지하며 설움과 아픔을 달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자치회의 갈등 조정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경찰의 치안 공백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고흥경찰은 9일 흉기를 휘둘러 소록도 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오모(68)씨를 검거했다.

오씨는 이날 오전 4시45분께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한센인마을에서 전모(65)씨와 최모(여·6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센인으로 소록도 주민이다. 피해자 전씨와 최씨는 연인관계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새벽 오씨가 최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최씨를 먼저 살해하고, 이어 전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씨는 전씨의 집 현관에서 배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범행을 저지른 뒤 흉기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이 쓰러진 오씨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고, 오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

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오씨와 숨진 최씨가 평소 친분이 있었으나, 최근 최씨가 숨진 전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병원 후송 도중 “2명을 죽이고 자해했다”는 오씨의 진술과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오씨가 이들 남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병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현재 530여명의 환자와 250여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센인들은 병원과 거주지 마을 7곳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마을에 살면서 아프면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나아지면 다시 돌아가는 식이다.

한센인마을은 외부와 단절된 탓에 폭행 등 환자간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자체 형성된 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가 문

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자치회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소록도에는 경찰 치안력이나 공권력이 사실상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록도병원 인근 치안센터에 경찰관 1명이 상주하긴 했지만, 지난 2월 인사에서 빼내 현재 치안센터는 잠정 폐쇄된 상태다.

대신 소록대교 건너 녹동파출소에서 소록도를 관할하며 소록도병원까지 순찰을 돌고 있지만 순찰은 병원 입구까지이고, 병원 내부나 한센인마을은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공권력에 따른 상처가 뿌리 깊어 경찰이 마을에 들어가면 감시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다”며 “자치회가 치안력을 대신했으나 한계를 노출한 만큼 자금과 같은 치안형태를 점검해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고교생이 20대 여성 흉기 습격

도심공원 새벽 산책하던 여성 성범죄 기도 가능성

경찰, 지적장에 10대 검거

새벽 시간 도심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사건 발생 18시간 만에 주거지이자 범행 장소 인근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적장에 3급으로 고교 3학년인 피의자가 애초 제기된 묻지마식 흉기 범죄가 아닌 성범죄를 목표로 한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9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A(18)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1시께 열대야를 피해 공원 산책에 나선 B(여·24)씨에게 접근해 흉기로 3차례 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동복을 입고 공원 트랙을 걷던 B씨의 뒤로 조용히 다가섰다가 일순간 뛰어가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 등과 다리 등을 3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

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A군이 쓴 흉기는 나무로 된 지팡이 손잡이 부분에 등산용 칼을 테이프로 묶은 것이었는데, 그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팡이를 잡고 강하게 저항하자 버려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공원 주변에서 확보한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한쪽 다리에 장어를 가진 남성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서 범행 발생 18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한 피의자는 범행 장소인 공원 바로 옆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물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태”라면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성범죄를 목표로 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여서 더욱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팡이 흉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유전자 및 지문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폭염에…잇단 ‘짜증 범죄’

여성에 침뱉고 경찰 폭행…어깨 부딪혔다며 패싸움 1명 의식불명

무더위 속 ‘짜증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은 9일 행인과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20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횡단 보도 앞 길에서 B(여·23)씨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린 혐의다. 이어 이를 막아서던 교통경찰관(50·경위)의 뺨도 한차례 때린 데 이어 발길질도 3차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신분열 증세(조현병)가 있는 김씨는 “날씨가 더워 그냥 모든 게 짜증났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A씨는 장애인복지관 추천으로 4개월 전부터 광주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서부경찰도 이날 길을 걷다가 사소한 시비로 다툼을 벌이다 행인을 중태에 빠뜨린 20대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0시30분께 서구 치평동 한 술집 앞에서 회사원 D(29)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얼굴을 맞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

C씨와 D씨는 사건 당일 각각 일행 6~7명과 어울려 술자리 가진 뒤 길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패를 이리 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0대 2명 차 흠쳐 드라이브…돌려 놓으려다 딱 걸렸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를 흠쳐 도심 드라이브를 즐긴 뒤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던 10대 2명이 주차 직원에 걸렸다.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홍모(15)군 등 2명은 지난 1일 새벽 4시께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열쇠를 꽂아둔 차 세워둔 A(61)씨의 승용차를 흠쳐 광주시내 일원 120

km가량을 타고다니다 제자리에 둔 혐의.

○…홍군 일당은 차량을 되돌려 놓으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던 중 차량 주인 A씨가 “내 차다”라고 소리치며 뛰어오자 차를 두고 그대로 달아났는데,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용의자의 모습과 차량에 남은 지문을 토대로 조사에 나서 범해 하루 만에 일당을 모두 검거.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보신탕 욕설’에 SNS 분노 확산

최여진 모친 비난 줄이어

기보배 “신경쓰지 않겠다”

모델 출신 여배우 최여진의 어머니 정모씨가 보신탕을 먹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양궁 국가대표 기보배 선수에게 한 욕설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정씨는 다음날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사과문 자체가 또다시 논란을 불러오면서 누리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 유머” 이용자 ‘달콤XX’는 “이제 기보배 선수 무조건 금메달 따길 아줌마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라고 말했고, 네이버 이용자 ‘알레X’는 “기보배가 개인전 금메달 못 따면 각오해라”는 글을 남겼다.

또 ‘드라X’은 “개고기&패드릭 직후 유도와 펜싱, 탁구 등 8강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관련성이 없다는 걸 알지만 꼭 올림픽 도중에 저주를 퍼부어야 했나?”라며 이번 사건으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했다.

보신탕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 정씨의 패륜적인 언행 이른바 ‘패드릭’과 비논리적인 발언에 분노하기도 했다.

‘웃긴대학’ 이용자 ‘멀로라XXXX’는 “그것을 묻고 싶다. 애완견 중성화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 생식기도 자르냐”고 말했다. ‘세종패X’도 “사람을 개취급 하고 개를 사람취급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사람들 정서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howcanI’는 “아주머니 상대가 국가대표 선수고, 딸이 유명한 연예인이라서 비난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본인

이 무식코 뽀은 딸이, 얼마나 아반까지 미개한 표현이었는지 곰씹어 생각해보시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랍니다. 누가 아주머니의 귀한 자녀에게 같은 말을 했다면, 몇 날 며칠 잠이 오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di68XX’는 ‘유기견 봉사보다 사람에게 대한 봉사부터 하시죠~’라고 지적했다.

정씨가 자신의 애완견에게 소고기를 사 먹었던 일도 재차 회자되고 있다.

‘뽀뽀’ 이용자 ‘김낙XX’는 “소고기 20kg씩 사먹이던데 인도 국민들한테는 미안하지도 않냐”라고 남겼고, 네이버 ‘civi-XXXX’는 “기보배 부모는 자식을 위해 개고기를 먹었고, 최여진 엄마는 자신이 키우는 개를 위해 쇠고기를 사먹었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양궁 개인전에 출전한 기보배 선수는 “국내에서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저에게 플러스가 되지 않는 것들은 손톱만큼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며 남은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기자 pboxer@



광복절엔 태극기 답시다

광복절을 앞둔 9일,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광주북구협의회 회원들과 광주 임동 주민자치센터 직원 및

어린이들이 임동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태극기를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평택 토지 매매

★ 삼성전자 120만평 ★ LG 11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도 후회 없습니다.

개발 토지 1

◆ 평택 신장동

초역세권 송탄역 5분 (송북시장) / 토지 184평

오피스텔 65세대 신축가능

개발시 순수익 15억 발생

▶ 매가 12억

개발 토지 2

◆ 평택 신장동

초역세권 송탄역 2분 / 토지 358평

오피스텔 (207세대) 신축가능

개발시 순수익 37억원

▶ 매가 30억

평택 토지 (소액 투자)

①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322평 (평당145만)

고덕 신도시 5분 - 계획관리지역

▶ 매가 4억 6천 700만

②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 301평 (평당 170만)

마산산단 과 Lg산단 정문예 위치 (원룸부지 빌라부지 특A급 토지)

▶ 매가 5억 1천 700만

③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고덕 신도시 5분) / 613평 (평당 95만)

▶ 매가 5억 8천 235만

커피숍 임대

전대 정문 2분, 모아아파트 후문 (코너)

커피, 식사, 맥주 판매

※ 20평 (코너자리)

※ 시설비 무료

단골손님 다량 보유 / 사업자 대출 2,000만 가능

▶ 보 1천만, 월 40만

사무실 임대 (1층)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 1층 (30평) ● 리모델링 완비

화장실, 휴게공간 별도 있음 / 부동산, 사무실, 모든업종 가능

▶ 보 2천, 월 100만

오피스텔 및 사무실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6층 - 45평

▶ 최고급 인테리어 (약 5평 저은 짐방 1개)

(시설비 약 4천만) (사무실 2개)

▶ 천변로 전망 최고 !! 주차 원비

(사무실 최적함)

★ 매가 1억 4천만 ★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영광읍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

● 토 151평, 건 43평

● 영광 터미널 5분

(농가주책 최적함 !!)

▶ 매가 8천 500만

010-6670-9800

010-7384-7800

062-382-5500 010-6834-4800